



이 달의 계란 전망

이 남 희
본회 경영지원부

과잉입식에 따른 불황 가시화
- 생산감축 없이는 단기간 회복 어려울 듯 -

◆ 동향

설 명절을 지나면서 시중 난가가 폭락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특란은 개당 129원(2월23일기준)으로 1월 형성되었던 159원에서 5차례 연이어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지에서는 고질적인 현장할인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농가수취가격은 이미 원가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 입식증가에 따른 난가 불황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통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계군에 의한 잔알 체화가 심화되고 있다. 난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환우가담비율도 높아져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초 사료가격 인하기대가 무색하게 다시금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원가의 부담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자료분석

지난 1월 산란종계입식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란실용계 입식량은 2,895천수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반면, 설명절 연휴기간 미분양된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5.7%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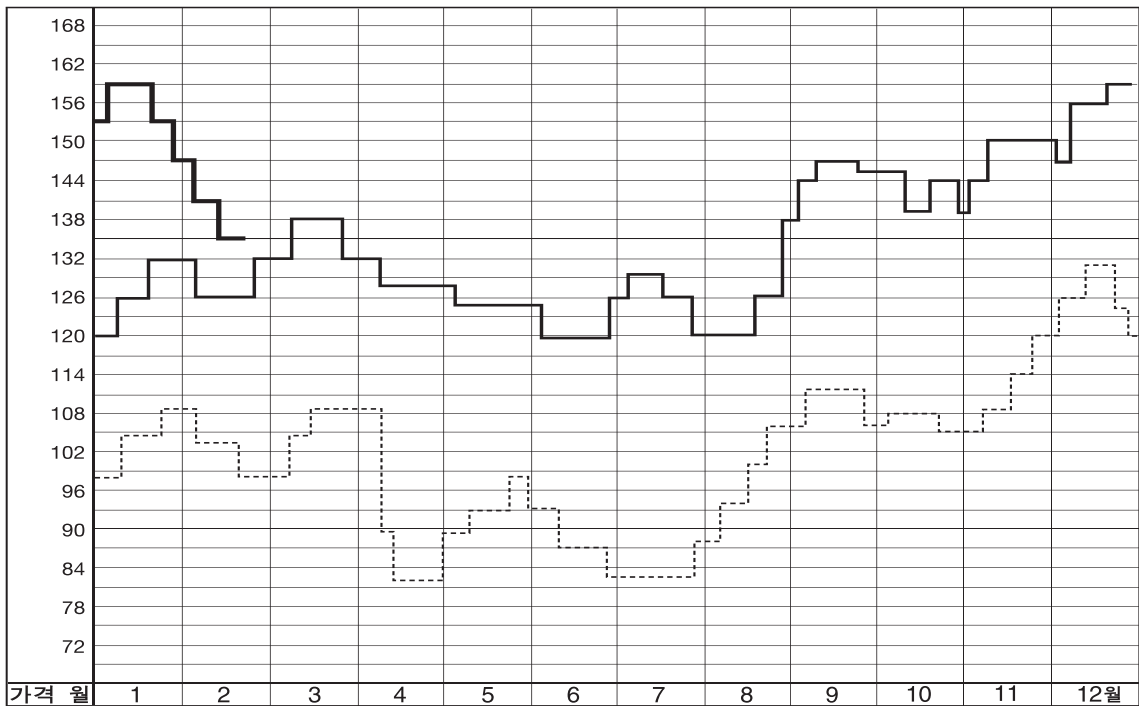
1월 사료통계에 따르면 육추사료와 산란사료는 각각 22,687톤, 163,951톤으로 으로 전년대비 19.9%와 7.0%씩 감소하였다. 사육수수를 고려하였을 때 추정치를 밑돌았으나 이는 설연휴기간과 환우로 인한 일시적 수요 감소로 판단된다. 1월 종계 Date-Base 집계결과에 따르면 현재 종란을 생산하는 21~78주령 산란종계는 481천수로 전년대비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월은 추석명절 수요에 대비한 산란실용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상당량의 실용계가 입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평균 산란노계가격은 수당(1.8kg기준) 669원으로 높게 형성하였다. 노계 계정육의 수출로 수요가 증가한 원인이 있었으나 명절 전후 생산감축을 위한 노계도태가 많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상당수의 노계군이 도태되지 못하고 여전히 생산에 가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 전망

당분간 채란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감소에 비례한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신계군입식이 크게 증가해 산란계사육수수 중 신계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도태하기엔 주령이 이른 만큼 조기도태보다는 환우가담을 선택하는 농가가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시적으로 계란생산량 감소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근본적인 계란생산감축은 예상보다 더디겠으며 약세가 장기화 될 수 있겠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급식수요가 증가하겠으나 이러한 과잉생산분을 얼마나 소화할지는 미지수이며, 월중 계란할인행사로 인한 물량소진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기반이 두터워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절대적으로 생산량 감축이 난가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겠다.



※ 2007.4.7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2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7-- 2008- 2009-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6	39,150	2,050	20.4	168.4	1,050	973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100	1,553
2	2006	14,000	2,654	19.8	151.8	1,050	894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3	2006	0	2,752	23.2	171.9	1,050	1,020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	2006	36,000	2,288	25.8	159.2	1,050	1,025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5	2006	48,500	2,637	29.1	165.2	1,050	1,031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6	2006	52,000	2,523	28.0	162.7	1,056	1,062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	2006	33,000	2,390	25.1	154.8	1,139	1,100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8	2006	34,820	2,693	24.7	156.6	1,150	1,14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9	2006	31,700	2,508	25.7	170.5	1,188	1,265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10	2006	59,500	2,415	27.8	163.5	1,200	1,134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11	2006	50,000	2,311	26.1	160.7	1,200	1,097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2	2006	30,000	2,351	26.3	165.2	1,194	1,0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계	2006	428,670	29,572	302.1	1,950.8	1,115	1,003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2008년 1월부터 총계입식수에 브라운닉 포함.

※2008년 4월 산란총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S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